

전략작물직불제 효과...전남 밀·보리 재배면적 늘었다

전남 맥류 재배면적 최대 16.1% 이상 증가...밀은 전년보다 39.5% ↑ 가격 상승에 봄감자 재배면적 증가...고령화에 과수 재배면적은 감소

전남지역 맥류 재배면적이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들이 맥류 재배면적을 늘린 건 밀, 보리,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맥류 재배면적은 늘어난 반면, 사과와 배 등 과수 재배면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 면적조사 결과'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지역 맥류(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 예상 재배면적은 1만5010ha로 전년 1만 2933ha 보다 16.1%(2077ha)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보면 올해 전남지역 밀 재배면적은 4572ha로 전년보다 39.5%(1295ha) 증가했으며, 쌀보리는 11.4%(653ha ↑), 맥주보리는 3.2%

(129ha ↑) 증가했다.
전남은 쌀보리와 맥주보리 최대 재배지역으로 나타났다. 밀은 전북에 이어 두번째였다. 광주는 세 번째로 많았다.
맥류는 전국적으로도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15.5% 늘어났다.
맥류의 재배면적 증가는 전략작물직불제와 밀 산업 육성법 등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략작물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된 데다 밀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정부 구매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밀 산업 육성법(2019년 제정)도 농가들에게 매력적인 정책으로 인식된 탓이다.
올해 봄감자 재배면적은 전국 기준 1만4699ha로

전년보다 12.9%(1681ha) 증가했다.
통계청은 전년도 감자 생산량 감소 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수미 감자 1kg의 도매 가격은 2020년 1607원→2021년 1618원→2022년 2341원→2023년 2646원으로 상승했다.
봄감자 재배면적은 충남(2562ha)→경북(2440ha)→전남(2372ha)→강원(1811ha)→경남(1348ha) 순으로 많았다.
반면 과일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농촌 고령화로 과수원을 운영을 포기하

는 농가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과 재배면적은 전국적으로 지난 2022년 3만 4603ha였으나 올해는 전년보다 2%(692ha) 감소한 3만3911ha로 예상됐다.
사과 최대 주산지인 경북에서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을 필두로 전국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과 광주에서는 재배면적이 각각 240ha, 3ha인 것으로 집계됐다.
배 재배면적은 9607ha로 전년(9680ha)보다 73ha(0.8%)감소했다. '나주배'를 비롯 전국에서 배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곳은 전남이었는데, 전남은 올해 2710ha로 전년 2729ha보다 0.7%(19ha) 줄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K-농식품' 베트남서 인기
최신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지역 특산 농식품 수출 상품설명회'에서 베트남 현지 바이어가 국내 농식품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남과 논산 등 전국에서 추천 받은 지역농산품 80여 개를 전시하고 공사가 초청한 현지 바이어와 유통업체 50개소를 매칭해 68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aT 제공>

북광주농협 '찾아가는 미용 봉사단' 발대



머리 정돈·염색 봉사

북광주농협(조합장 구상봉)은 지난달 28일 광주시 북구 용강동과 수곡동에 위치한 영농회 경로당에서 고향주부모임 회원들과 함께 '찾아가는 미용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 북광주농협은 시간과 비용 때문에 미용실을 찾기 어려운 농촌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미용봉

사단'을 만들고 관내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들에게 머리 정돈 및 염색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구상봉 조합장은 "북광주농협은 효사랑 실천 운동 및 농촌 복지 실현을 위해 농협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북광주농협의 '찾아가는 미용봉사'는 용강마을, 수곡마을을 시작으로 매월 실시할 예정이 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4060 여성 맞춤형' 농촌 여행지 15곳 선정

농진청 '무등산반디평촌마을' 등 농촌진흥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평 '겔러리 하루' 등 '4060 여성 맞춤형' 농촌 여행지 15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여행지는 농촌진흥기관이 육성한 전국 농촌교육농장, 농기맛집, 외식·체험형 사업장 중 방문객 만족도가 높은 곳이다.
선정 여행지 15곳은 ▲장흥 '장흥 예다원' ▲한평 '겔러리 하루' ▲광주시 '무등산반디평촌마을' ▲경기 포천 '자일랜드' ▲강원 강릉 '들꽃면지' ▲영월 '채식힐링농장' ▲홍천 '장풍이 체험학교' ▲충북 충주 '에그린' ▲영동 '추풍령사슴농원' ▲

충남 홍성 '예당큰집' ▲당진 '순성 왕매실마을' ▲전북 완주 '두억행복드림마을' ▲경북 경산 '바람햇살농장' ▲청도 '곰꾸는 공작소' ▲경남 진주 '물사랑 농촌교육농장' 등이다.
여행지 정보와 예약은 여가활동 추천 서비스 플랫폼 '노는법' (nonunbub.com)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소규모 농촌여행이 활성화되면 도농 상생은 물론 지역과 관계를 맺고 이어가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우리 농촌이 대국민 여가 공간이자 휴식, 여행을 위한 장소로 사랑받도록 관련 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식품부, 생강농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8월 11일까지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생강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오는 8월 11일까지 생강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자격 증명서류와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금 여부와 지원금 규모는 신청 이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조사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결정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북·민물장어 등 여름철 양식수산물 특별전

8월 10일까지 최대 20% 할인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 자조금단체와 3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국수산물 인터넷 쇼핑몰 피쉬세일에서 '여름철 양식수산물 보양식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전북, 우럭, 광어(넙치), 민물장어 등 여름철 보양식으로 잘 알려진 수산물뿐만 아니라 송어, 향어, 메기 등 내수면 수산물까지 10~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 소비자들이 구입한 수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도록 '2022 양식수산물 요리대회' 수상작의 요리 방법도 피쉬세일을 통해 소개

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15일 양식수산물의 다양한 판로 확대를 위해 한국수산회와 양식수산물 자조금 단체가 맺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